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우리 남편은 바보 같은 천사예요. 얼마 전에 누가 남편의 차를 박았는데, 보상을 한 푼 안 받고 그냥 집에 왔어요. 남편은 상대 운전자에게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가라"고 했대요. 이럴 때 약간의 수리비 정도는 받아 내고 혹시 모르는 일이니 전화번호 정도는 받아와야 하지 않나요?" 또 "언젠가 내가 무슨 일로 남하고 다툰 일이 있는데,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에게 고개까지 숙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라 했어요. 아니 마누라가 싸우면 남편이 당연히 나서서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거 아녜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천사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은 명확하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자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철저히 '이기심'과 '각자도생'으로 작동하는 법이니 패배는 부끄러운 것이라 남을 짓밟고서라도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 배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세상의 이 알고리즘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상식 파괴' 선언을 하신다."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주린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한 것일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호구라고 불리기 십상이다. 남을 눌러야 내가 사는 세상에서 양보하고, 침묵하고, 손해 보며 살아가는 이들, 필요할 때는 이용당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잊히기 일쑤인 사람들. 세상은 이런 이들을 루저(Loser)나 비주류라 부르며 뒤처진 사람이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세속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 세상은 '지금 얼마나 더 쥐고 있는가'로 행복을 따지지만, 신앙인은 언젠가 하느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가치에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제1독서인 요한 묵시록에서 참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된다. 구원받은 수많은 이들이 눈부시게 흰 옷을 입고 하느님 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옷은 '어린양의 피'로 빨아 희게 되었다는 것이다. 붉은 피로 빨았는데 옷이 눈처럼 희어졌다고 한다. Flu Shot처럼 나쁜 독감 균을 몸에 넣어 독감을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 십자가 지며 흘린 눈물, 사랑하느라 생긴 상처와 가난이 예수님의 수난과 결합할 때, 그것을 찌꺼기 하나 없이 가장 순결하고 빛나는 존재로 정화시켜 준다는 말씀이다. 세상의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승리의 영광으로 승화시킨다는 뜻이다.

제2독서(1요한 3,2)는 이 여정의 끝에 기다리는 절정을 보여준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지상이라는 고단한 성지순례를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얻은 세속의 훈장을 보지 않으신다. 대신에 사랑 때문에 얻은 우리 몸의 '눈물 자국과 흉터'를 보신다. 그 상처를 보시고 "너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어서 오너라."하실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분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순간, 그것이 인생 최고의 귀향(돌아 감)이자 완전한 행복일 것이다.

하느님은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주는 상선벌악의 교리도 그런 우리의 통념에서 나온 함정이다. 그리스도신앙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통념들을 넘어서 우리와 전혀 다른, 하느님을 기준으로 살자는 생활의 운동이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모든 성인'은 무명의 성인까지 포함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정식을 거부하고 '십자가라는 어리석음'을 택했던 수많은 '무명의 성인들'이 주인공이다. 그들은 더 이기적일 수 있었지만 스스로 물러섰고, 더 큰소리칠 수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했다. 세상의 칭찬보다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는 그 한마디에 인생을 거신 분들이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신앙의 기준에서 멀어졌기 때문인가?" 옆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손해 볼 줄 알면서도 정직을 택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삶.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이야 말로 하느님의 생명이 작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통념이 우리를 흔들 때,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실 수많은 성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자. 사랑을 위해 기꺼이 어리석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였으면 한다. **거룩하신 성인 성녀 저희 위해 빌어 주소서!**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11/ 1	김종휘(루카)	김희경(안젤라)	정한나		이춘자(희순루시아)
	임장미(모니카)	유 용(아우그스투스)	영어권		임장미(모니카) 영어권
26 년 11/ 8	현재영(바오로)	김재훈(루갈다)	현동숙(소피아)		박춘자(아가다)
	이관복(바오로)	심묘현(안젤라)	박만석(마뉴엘)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공 동 체 소 식

◎11 월 위령성월, 본당 9 일기도(Novina)
▸ 일시:11 월 2 일~11 월 10 일(화) 9 일간
(9 일 기도 기간 중 저녁미사 7 시 30 분)

◎위령 성월 3개성당 합동 묘지 미사 및 연도
▸ **일시: 2026년 11월 7일 오전11시**
▸ 장소: 올 세인트 가톨릭 묘지 대성당(2층)
▸ 주관: 성 김대건 성당

◎김두진(바오로)신부님께서 ME
교육지도(10 월 31~11 월 1 일)로 금주미사는
강보경(프란치스코)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구역 반장교육
▸**일시:** 11 월 1 일(일) 10 시 30 분, 1 호실

◎반모임일정 안내
▸1 구역: 11 월 14 일(토)오후 6 시 신관 2 호
▸4 구역 5 반: 11 월 21 일(토)오후 2 시-정세실리아댁
▸8 구역 2 반: 11 월 20 일(금) 오후 4 시-김종루형제댁

◎Eucharistic Adoration(성체조배)
▸일시: 11 월 1 일(일) 오전 10 시 15 분 ~10 시 45 분
영어권신자들이 이끄는 성체조배가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울뜨레아
▸일시: 11 월 15 일 10 시 30 분 신관 1 호

◎꼬미시움
▸일시: 11 월 15 일 12 시 30 분 신관 1 호

◎ 빈첸시오 월례모임
가난한고 소외된 홀레스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겨울용품을 돕고자 자선후원회비를 친교실에서
11 월 22 일~12 월 20 일까지 접수합니다.

◎26 년 본당 송년파티
▸일시: 2026 년 11 월 29 일 오후 4:00 – 9:00
▸장소: Lone Tree Manor Banquet Hall
(7730 N. Milwaukee Ave. Niles, IL 60714)
▸참가비: $50.00/1 인당
▸참가신청: 활동분과장 혹은 활동단체장

◎성경필사는 12 월 13 일까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선교바자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선교바자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교우님들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분들:
이관복(바오로), 심희섭(필립보), 여재동(베드로),
이지훈(베드로), 요셉회, 김영덕(그레고리오),
황정융(보스코), 장기섭(토마스), 이영수(안드레아),
허관(스테파노), 이문규(라파엘), 이춘재(엘리사벳),
윤유정(루시), 김화룡(수산나), 김양균(아네스),
이종금(폴리나), 소냐, 앤디(sonya &Andy)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추수감사절 터키 나눔
추수 감사절을 맞아 11월 22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사랑의 터키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김정자(카타리나), 임기홍(스테파노), 박춘자(아가다),
정영옥(모니카), 김종휘(루카), 이영수(안드레아),
김정숙(아네스), 한명수(아오스딩마리아), 이관복(바오로),
박만석(마뉴엘)

ㅇ교무금	$ 1,660.00	ㅇ주일헌금	$ 1,445.00
ㅇ토요, 영어미사	$ 206.00	ㅇ감사헌금	$ 300.00
ㅇ선교후원금	$ 1,150.00		

▪감사헌금: 김정자(카타리나), 한명수(아오스딩마리아)

『 2026년 11월 1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Sr.최재순(에스텔), 백경숙(아그네스), 황정순(크리스티나),
유명주(마가렛), 이지훈(베드로), 이정명(세실리아),
엄광식(토마스)

■ 연미사
이긍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꿀라따),
최후분(수산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백승재(야고보),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조문기(사스땅야고보), 김순열(카타리나),
이동준(베드로), 이선애(마틸다), 이덕용(마리아), 임영일(바오로),
이옥수(다두), 김희왕(스테파노) 김성애(마리안나), 주영선(소피아)

11월 3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꿀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승재(야고보), 백용길(그레고리오),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연미사)**

11월 4일(수) ~ 11월 7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연미사)**
11월 6일(금): 이문규(라파엘) **(생미사)**
오신부님(Fr. Charles O'rouke) **(연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파트너스 부동산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배 페인팅
배 홍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라저스팍 꽃집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정통 한정식 전문점
반 포 정
전곡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Michael Zyung
BAIRD & WARNER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냉면이라면 조선옥 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백이도 역시
조선옥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자동차정비와 바디에 관한모든것
TAXI & AUTO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go, IL 60614
312.929.9068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젬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 코스타리카 (6일): 5월 20일, 9월 2일 출발
-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지순례: 9월 5일 출발
- 산티아고 도보 순례: 9월 5일 출발
- 서유럽 4 개국 (11일): 9월 8일 출발
- 멕시코 과달루페 (5일): 9월 28일 출발
- 베트남, 일본, 제주, 남해 투어 (16박 17일): 10월 15일 출발
- 동유럽 발칸 7 개국 (14일): 10월 15일 출발
- 이집트 요르단 (13일): 11월 13일 출발
- 항공권, 크루즈, APPLE VACATION

내가 원하는 일정 나만의 맞춤 여행을 알려드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한국장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 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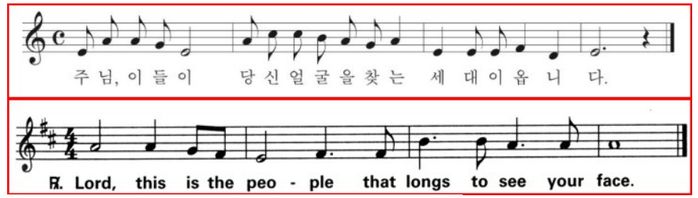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Sr. 이 정희(마틸다)	C (773) 941-2648

2026 년 11 월 1 일 모든성인 대축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요한 묵시록7,2-4.9-14

◉화답송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 제 2 독서 요한 1서.3,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 복음 마태오 5,1-12ㄴ

◉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56	봉헌성가	211
성체성가	161	파견성가	463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